

FIP-2013-0001 (통권 제197호, 2013. 3. 25)

**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 
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과 시사점**

ISSUE  
PAPER

**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과 시사점**  
 - 한중 FTA, 한중일 FTA, RCEP를 중심으로 -

**Contents**

**< 요약 >**

**I.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..... 1**

    1.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동아시아경제통합 ..... 1

**II.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의의 ..... 3**

    1. 한중 FTA, 한중일 FTA에 이은 동아시아경제통합 ..... 3

    2. 한중 FTA의 추진 ..... 5

    3. 한중일 FTA의 추진 ..... 6

    4. RCEP의 추진 ..... 8

**III.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대 ..... 11**

    1. ASEAN 시장에 대한 기대 ..... 11

    2. 한·ASEAN FTA의 성과 ..... 12

    3.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업의 입장 ..... 13

**IV.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에 따른 시사점 ..... 15**

**< 참고문헌 > ..... 17**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아시아팀 이준희 과장이 작성한 것입니다.  
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TEL : 02-3771-0266    FAX : 02-6234-5313    E-mail : jhlee12@fki.or.kr



## ● ● ● 요약 ● ● ●

### □ 검토 배경

-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단기간 전방위적으로 FTA 추진 정책을 펼침
  - 주요 시장의 거점국 및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·다자 차원의 새로운 FTA 추진 단계에 진입
- 한중 FTA 및 한중일 FTA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동시 추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필요

### □ 동아시아경제통합 현황

- 우리나라는 2012.4월 한중 FTA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마쳤으며 올해 3~4월 한중일 FTA와 RCEP의 1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
- 한중 FTA는 한중일 FTA 추진의 디딤돌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RCEP의 형태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고 있음
  -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최우선하면서 이 결과를 한중일 FTA, RCEP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

### □ 동아시아경제통합 효과

- 동아시아경제통합은 역내 교역 증가 및 거대 시장 확보, 역외 무역 의존도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
  -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, ASEAN,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·다자 차원의 FTA 추진은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 비중 측면에서는 물론 세계 경제 중심축 이동에 따른 아시아의 부상으로 그 파급 효과가 거대할 것으로 생각
- 경제적 효과 외에 정치·외교·안보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 예상

### □ 추진 과제

- 교역 활성화를 통한 실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안정을 이끌어내는 전략 필요
-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어 수출기업의 금융, 마케팅,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피해산업에 대한 R&D 세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
-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기업경영 및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및 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시급



## I.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

### 1.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동아시아경제통합

- 우리나라는 '04.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건 총 45개국과 FTA를 체결함(터키, 콜롬비아와의 FTA도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음)
  -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건 하에서 FTA는 주요한 대외통상전략의 하나임
  - 주요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들을 시작으로 최대 단일시장인 EU,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까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단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큰 성과를 이루었음
    - 칠레, ASEAN, 인도, EU, 미국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대상국들은 전 세계 GDP의 57.3%, 우리나라 교역 비중의 34.8%를 차지함
- 지금까지의 FTA 추진 성과에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한중 FTA를 시작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FTA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음
  - 한중 FTA는 지금까지 4차 협상을 마쳤으며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\*은 '12.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올해 3월 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
    - \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: ASEAN 10개국, 한-중-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FTA 협상
    - 지리적 인접국이자 거대시장인 중국, 일본은 물론 ASEAN을 상대로 양자, 3자, 그리고 지역다자 차원에서 동시 진행하게 될 이들 FTA는 정부에서 표명 하듯이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
    - 한편,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\*에 일본도 참여를 표명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
      - \*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: 칠레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뉴질랜드, 호주, 베트남, 페루, 말레이시아,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등 아시아·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FTA 협상

-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계기이자 주요 동력이 된 한중 FTA는 기존에 추진해온 FTA와는 추진 방향이나 전략, 방법, 결과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
  - 교역 및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는 물론 정치·외교·안보 측면에서도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
  - 한중 FTA 자체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한중일 FTA, RCEP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중 FTA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름
  
- 이에,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한중 FTA는 물론 동아시아경제통합이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최대의 이익 실현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  -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, ASEAN, 일본을 상대로 한 FTA인 만큼 이에 따른 파급 효과 점검 및 향후 국내 산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
  -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게 있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향후 정부의 대외통상 전략 및 경제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함

<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>

(단위: 억불)

| 구 분             |       | 2007    | 2008    | 2009    | 2010    | 2011    | 2012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중국              | 수출    | 819.9   | 913.9   | 867.0   | 1,168.4 | 1,341.9 | 1,343.3 |
|                 | 수입    | 630.3   | 769.3   | 542.5   | 715.7   | 86.4.3  | 807.8   |
|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20      | 19.6    | 20.5    | 21.1    | 20.4    | 20.1    |
| ASEAN           | 수출    | 387.5   | 492.8   | 409.8   | 532.0   | 718.0   | 792.4   |
|                 | 수입    | 331.1   | 409.2   | 340.5   | 441.0   | 531.2   | 519.8   |
|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9.9     | 10.5    | 10.9    | 10.9    | 11.6    | 12.3    |
| 일본              | 수출    | 263.7   | 282.5   | 217.7   | 281.8   | 396.8   | 388.5   |
|                 | 수입    | 562.5   | 609.6   | 494.3   | 643.0   | 683.2   | 643.5   |
|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11.3    | 10.4    | 10.4    | 10.4    | 10      | 9.7     |
| 중국+ASEAN<br>+일본 | 비중(%) | 41.1    | 40.6    | 41.8    | 42.4    | 42      | 42.1    |
| 전체              | 수출    | 3,714.9 | 4,220.1 | 3,635.3 | 4,663.8 | 5,552.1 | 5,480.8 |
|                 | 수입    | 3,568.5 | 4,352.8 | 3,230.9 | 4,252.1 | 5,244.1 | 5,195.8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## Ⅱ.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의의

### 1. 한중 FTA, 한중일 FTA에 이은 동아시아경제통합

- '12.5월 협상이 개시된 한중 FTA가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애초 일본과의 FTA를 우선시했음
  - 한일 FTA 협상은 '03.12월 협상 개시 이후 일본의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보 미흡 등 양국 간 이해관계가 타협되지 않으며 '04.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임
  - 한편, 한미 FTA 체결과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옴
    - 이에 따라,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 관계인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내어 한중일 FTA는 물론 ASEAN을 중심으로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까지 동시에 추진되기에 이름
-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애초 일본,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, RCEP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 의견이 분분했으나, 한중 FTA의 진전에 따라 동아시아경제통합에 이르는 길이 자연스럽게 정리됨
  -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양자 FTA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되 향후 일본 및 ASEAN 등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외연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
    - 특히,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조율과 함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임
- 한중일 FTA, RCEP는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 및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물론 세계경제 중심축 이동에 따른 아시아의 부상으로 그 파급 효과가 거대할 것으로 생각됨
  -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중일 FTA로 한중일의 GDP는 각각 2.6%, 0.6%, 0.2%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<sup>1)</sup>
    - 특히,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,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한중일 경제통합 시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

1) 기획재정부(2011), 「한중일 성장 및 교역 동향 시사점」



## &lt; 아시아권 FTA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 &gt;

(단위: %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GDP 증가 | 수출 증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한중일 FTA               | 3.38   | 6.77  |
| ASEAN+3 통합 FTA        | 5.17   | 8.84  |
| 한일, 한중 개별 FTA         | 4.32   | 7.75  |
| 한일, 한중, 한ASEAN 개별 FTA | 6.09   | 9.81  |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」, 2011.12월

- 하지만 한중일 FTA가 최종 목표는 아니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를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삼아야 한다는 의견임
-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다자 자유무역협정은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이며,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과제임<sup>2)</sup>
- FTA 허브국가 실현은 단순히 양자적 FTA를 묶기 보다는 다자적 FTA를 통한 다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한중일 FTA는 RECP 등 다자 FTA를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<sup>3)</sup>
- 정부는 RCEP가 전 세계적인 불황이나 역외 경제권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며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RCEP를 통한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제도 및 기준 적용은 양자 FTA 체결 시 발생 가능한 ‘스파게티볼’ 현상\*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임
- \*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, 통관절차,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들어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
- 즉, 시장 접근의 이익은 양자 FTA를 통해 챙기고 그에 따라 커지는 비용은 (스파게티볼 효과) 광역 경제 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<sup>4)</sup>
- 또한 수출 시장으로서 ASEAN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앞으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동북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경제통합은 필요한 수순임
-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및 일본의 수출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ASEAN에 대한 수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부품소재 및 자본재는 물론 소비재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2) 배공찬(2012), 「TPP, RECP 그리고 한중일 FTA: 외교안보적 관점에서」, 국립외교원

3) 손열(2012), 「한중일 FTA 공청회」,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

4) 김수동(2012), 「RCEP 제조업 분야 대응방안」, 산업연구원

## 2. 한중 FTA의 추진

-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에 달함
- 수직 분업구조에 따라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역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, 부가가치 기준\*으로는 수출 비중이 줄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으로 자리함
- \* 「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 한국 분석 보고서」('13.1월)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교역량 방식 적용시 전체 수출의 27%이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19%로 감소('09년 기준)

### < 한국의 대중국 교역 현황 >

(단위: 억불, ( )는 증감률)

| 구 분  | 2006              | 2007              | 2008              | 2009               | 2010              | 2011              | 대세계교역비중<br>(대세계교역액)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출   | 694.6<br>(12.2)   | 819.9<br>(18.0)   | 913.9<br>(11.5)   | 867.0<br>(△5.1)    | 1,168.4<br>(34.8) | 1,342.0<br>(14.9) | 24.2%<br>(5,552.1억불)  |
| 수입   | 485.6<br>(25.6)   | 630.3<br>(29.8)   | 769.3<br>(22.1)   | 542.5<br>(△29.5)   | 715.7<br>(31.9)   | 864.3<br>(20.8)   | 16.5%<br>(5,244.1억불)  |
| 무역수지 | 209.0             | 189.6             | 144.6             | 324.6              | 452.6             | 477.8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교역액 | 1,180.2<br>(17.4) | 1,450.1<br>(22.9) | 1,683.2<br>(16.1) | 1,409.5<br>(△16.3) | 1,884.1<br>(33.7) | 2,206.3<br>(36.1) | 20.4%<br>(10,796.3억불) |

자료: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, 「한중 FTA 추진계획」, 기획재정부('12.4월)

-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입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큰 무역흑자국으로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과 저가공산품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
- 하지만, 중국을 기존의 공장으로서가 아닌 시장으로서 접근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에서 경쟁국 대비 일반무역의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 한중 FTA를 통해 내수 진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<sup>5)</sup>
- \* 우리나라의 대중국 일반무역 비중: '07년 29.1% → '10년 32.7% → '11년 34.3%

5) 최용민(2012), 「한중 FTA의 우리 교역에 대한 영향」, 국제무역연구원

### 3. 한중일 FTA의 추진

- 한중일 3국은 명실상부 실질적인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
  - RCEP 참여국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72.2%(14.3조 달러), 무역비중은 63.2%(6.4조 달러), 인구는 44.8%(15.2억 명)에 달하며 RCEP 내 교역비중도 54%에 달함
  - 한중일 3국 간 교역은 수직 분업구조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역외국에 수출하는 구조임

#### < 한중일 양자 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 비중 >

(단위: %, 2007년 기준, 일본은 2006년)

| 구 분   | 산업 간 무역 | 산업 내 무역 | 수평적<br>산업 내 무역 | 수직적<br>산업 내 무역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-중국 | 52.7    | 47.2    | 13.6           | 32             |
| 한국-일본 | 53.1    | 46.9    | 4.8            | 39.4           |
| 중국-일본 | 46.1    | 54      | 3.3            | 32.2           |

자료: 송원근(2009), 「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」, 한국경제연구원

- 이에 따라, 한국과 일본은 대중국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국의 위치에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
- 반면, 중국의 경우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한중일 FTA를 계기로 한국, 일본 시장으로의 진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
- 한중일 FTA로 인해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, 일정부분 자국 시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중일 3국에게 있어 한중일 FTA는 시장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
- 따라서, 한중일 FTA를 종착점이 아니라 RCEP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이룸으로써 ASEAN이라는 더 큰 시장을 확보해야 함<sup>6)</sup>
- 특히, ASEAN 시장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대체할 잠재력이 높으며 실제로 對ASEAN 부품소재 및 자본재는 물론 소비자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

6) 박변순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·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」, 삼성경제연구소

## &lt; 동북아의 역내 교역 현황 &gt;

(단위: 억 달러, %)

| 구 분   |    | 2000            | 2005            | 2010            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한국    | 수출 | 389<br>(22.6)   | 859<br>(30.2)   | 1,450<br>(31.1)  |
|       | 수입 | 446<br>(27.8)   | 871<br>(33.3)   | 1,359<br>(32)    |
|       | 교역 | 836<br>(25.1)   | 1,730<br>(31.7) | 2,809<br>(31.5)  |
| 중국    | 수출 | 529<br>(21.2)   | 1,192<br>(15.6) | 1,891<br>(12)    |
|       | 수입 | 647<br>(28.8)   | 1,773<br>(26.0) | 3,143<br>(22.9)  |
|       | 교역 | 1,176<br>(24.8) | 2,966<br>(20.8) | 5,034<br>(17.1)  |
| 일본    | 수출 | 612<br>(12.7)   | 1,272<br>(21.3) | 2,111<br>(27.5)  |
|       | 수입 | 758<br>(19.9)   | 1,336<br>(25.8) | 1,813<br>(26.2)  |
|       | 교역 | 1,370<br>(15.9) | 2,609<br>(23.4) | 3,925<br>(26.9)  |
| 동북아 계 | 수출 | 1,531<br>(17)   | 3,324<br>(20.2) | 5,452<br>(19.4)  |
|       | 수입 | 1,852<br>(24.2) | 3,980<br>(27.6) | 6,315<br>(25.3)  |
|       | 교역 | 3,382<br>(20.3) | 7,304<br>(23.7) | 11,768<br>(22.2) |

자료: 박번순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·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」, 삼성경제연구소

- 한중일 3국의 상호 교역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FTA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교역의 확대 이외에도 시장의 세분화와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함
- 한중일 3국의 교역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 근거한 부품·소재 중심의 교역 및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미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
  - 즉,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미미하여 교역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성의 확대가 한계를 보임
  - 따라서, 한중일 FTA가 자유화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된다면 교역 확대 이외에도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<sup>7)</sup>

7) 송원근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와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」, 한국경제연구원

## 4. RCEP의 추진

- 중국, 일본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를 넘어 동아시아경제통합인 RCEP의 추진은 교역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향후 지속성장과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임
- RCEP의 경제적 위상은 '11년 기준 GDP 28.4%, 교역 26.7%, 인구 49.1%를 차지하며 EU 및 NAFTA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
- \* 인구 비중은 EU, NAFTA에 비해 훨씬 높으며 경제규모도 가장 크고 교역은 EU 보다는 적지만 NAFTA보다는 큼

### <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>

(단위: %)

| 구 분     | 인구   |      | GDP  |      | 수출   |      | 수입   |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| 1992 | 2011 | 1992 | 2011 | 1992 | 2011 | 1992 | 2011 |
| 한중일     | 24   | 22.3 | 19.2 | 20.5 | 12.1 | 16.5 | 10.6 | 16.2 |
| ASEAN+3 | 33.3 | 30.9 | 21   | 23.6 | 16.9 | 23.1 | 15.5 | 22.5 |
| RCEP    | 50.4 | 49.1 | 23.7 | 28.4 | 18.8 | 26.8 | 17.6 | 26.7 |
| EU      | 8.9  | 7.4  | 33.7 | 25.2 | 42.4 | 38.3 | 41.6 | 38   |
| NAFTA   | 6.9  | 6.7  | 30.1 | 25.8 | 18.6 | 14.2 | 17.5 | 16.2 |
| TPP     | 9.7  | 9.6  | 32.4 | 29.8 | 23   | 20.3 | 21.8 | 22.4 |

자료: 이창재 외(2012), 「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-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역내 교역은 통상 높은 수준을 차지하며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, ASEAN이라는 거대 시장의 존재로 인해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편임
-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역내 교역 비중은 EU, NAFTA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, 이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최종재 수출비중이 낮기 때문임
- 지역경제에서 무역패턴이 산업 간 무역-수직적 산업 내 무역-수평적 산업 내 무역으로 진행해가야 역내 무역이 창출됨<sup>8)</sup>
- \* EU의 경우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66%이고 특히,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%에 달함<sup>9)</sup>
- 따라서 동아시아경제통합으로 역내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나타냄

8) 박변순(2012), 「동아시아 협력과 한중 FTA」, 삼성경제연구소

9) 송원근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와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」, 한국경제연구원

< 주요경제권의 역내 수출비율 >

(단위: %)

| 구 분     | 1996       | 2001       | 2005       | 2008       | 2010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ASEAN+3 | 36.2       | 33.8       | 35.1       | 34.4       | 35.5 |
| NAFTA   | 46.0(1995) | 55.7       | 55.8       | 51.3(2007) | 48.7 |
| EU      | 64.0(1995) | 68.0(2006) | 67.3(2006) | 68.1(2007) | 64.3 |

자료: 박변순(2012), 「동아시아 협력과 한중 FTA」, 삼성경제연구소

-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 비중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중국, 일본에 비해 역내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\* 비중 추이에 있어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
- 따라서, 동아시아경제통합으로 인한 교역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\* 우리나라는 '10년 수출 31.1%, 수입 32%로 동북아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일본의 경우 수출 27.5%, 수입 26.2%로 한국보다 낮고 중국은 수출 12%, 수입 22.9%로 3국 중 가장 낮음<sup>10)</sup>

<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 비중 >

(단위: %)

| 구 분        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중국+ASEAN+일본 | 41.1 | 40.6 | 41.8 | 42.4 | 42   | 42.1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-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를 살펴보면,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\* 무역집중도: 한 국가의 전체 수출에서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전체의 수출에서 상대국으로의 수출의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1 이상이면 높은 수준
-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모두 1 이상을 나타내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

<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>

| 구 분   | 중국    | 일본    | 홍콩    | 인도<br>네시아 | 말레<br>이시아 | 필리핀   | 싱가포르  | 베트남   | 태국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992년 | 1.495 | 2.260 | 2.106 | 3.219     | 1.296     | 2.189 | 2.026 | -     | 1.710 |
| 2000년 | 2.909 | 1.912 | 1.175 | 3.709     | 1.534     | 3.221 | 1.489 | 3.825 | 1.155 |
| 2007년 | 3.051 | 1.508 | 1.793 | 2.757     | 1.381     | 2.711 | 2.957 | 3.265 | 1.109 |

자료: 송원근(2009), 「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」, 한국경제연구원

10) 박변순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·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」, 삼성경제연구소

-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향후 그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의 역내 시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완화에 있음
-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, 일본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재를 역외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음
  - 문제는 중국의 최종재 역외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임
  - \* 한국과 일본의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반해 중국은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
  -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혹은 감소 추세이고 범위를 넓혀 ASEAN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에 있음<sup>11)</sup>
  - 이에 따라 미국, EU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
**< 중국의 수출입에서 한국·일본의 비중 변화 >**

(단위: %)

| 구 분  | 수출 비중 |       | 수입 비중 |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| 한국    | 일본    | 한국    | 일본    |
| 1992 | 2.83  | 13.75 | 3.25  | 16.98 |
| 2000 | 4.53  | 16.72 | 10.31 | 18.44 |
| 2005 | 4.61  | 11.02 | 11.64 | 15.21 |
| 2007 | 4.61  | 8.38  | 10.85 | 14.01 |

자료: 송원근(2009), 「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」, 한국경제연구원

- 따라서 한중일 FTA를 통해 역내 시장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역외 교역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
- 높은 자유화 수준을 이루어 실질적 경제통합을 이루고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수요를 촉진하여 지속 성장과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11) 송원근(2011), 「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와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」, 한국경제연구원

### Ⅲ.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대

#### 1. ASEAN 시장에 대한 기대

- ASEAN은 '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'10년 이후 EU를 제치고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함
- 중국의 수출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ASEAN에 대한 수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

< 주력 수출시장별 수출비중 변화 >

| 구 분   | 수출 비중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평가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| '08   | '09  | '10  | '11  | '12  |        |
| 중국    | 21.7  | 23.9 | 25.1 | 24.2 | 23.6 | 최근 감소세 |
| ASEAN | 11.7  | 11.3 | 11.4 | 12.9 | 14.0 | 지속 증가세 |
| 미국    | 11.0  | 10.4 | 10.7 | 10.1 | 10.9 | 최근 반등  |
| EU    | 13.8  | 12.8 | 11.5 | 10.0 | 9.3  | 지속 감소세 |
| 일본    | 6.7   | 6.0  | 6.0  | 7.1  | 7.1  | 최근 반등  |

자료: 지식경제부, 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분석」, '12.10월

- 특히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ASEAN으로 투자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

< 최근 대중·ASEAN 부품소재, 자본재 수출 동향 >

(단위: 억불, 전년동기대비 %)

| 구 분  |       | 2007          | 2008          | 2009           | 2010          | 2011          | 2012(1~8)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부품소재 | 중국    | 504<br>(17.3) | 551<br>(9.3)  | 613<br>(11.4)  | 832<br>(35.6) | 882<br>(6.0)  | 555<br>(Δ5.4) |
|      | ASEAN | 189<br>(9.4)  | 210<br>(11.3) | 180<br>(Δ14.7) | 223<br>(31.9) | 227<br>(1.9)  | 208<br>(6.0)  |
| 자본재  | 중국    | 448<br>(24.9) | 480<br>(7.2)  | 496<br>(3.3)   | 709<br>(43.0) | 760<br>(7.2)  | 499<br>(0.0)  |
|      | ASEAN | 188<br>(33.2) | 203<br>(7.8)  | 193<br>(Δ24.3) | 223<br>(24.7) | 270<br>(20.8) | 196<br>(12.4) |

\* 자료 : 지식경제부, 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분석」, '12.10월

- ASEAN 지역의 소득 증가로 소비재 수출 또한 증가하면서 ASEAN으로의 수출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함

\* 대ASEAN 소비재 수출증가율(%): ('08) 18.7 ('09) 6.7 ('10) 23.0 ('11) 20.8 ('12) 2.7



## 2. 한·ASEAN FTA의 성과

- 동아시아경제통합 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과의 FTA에 대한 성과를 통해 RCEP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
    -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상품분야 발효 전인 '00~'06년 사이 연평균 8.3% 증가하였으나, FTA 발효 이듬해인 '08년에는 전년대비 25.5%로 크게 증가함<sup>12)</sup>
    - 이후 '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, '10년과 '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.7%와 28.4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
    - 타 FTA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\*이 낮은 편임을 감안할 때 관세 감축뿐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
- \* 발효 2년차의 경우 대ASEAN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은 2.6%, 수입에서는 49.1%에 불과. 2010년에는 수출에서 29%, 수입에서 68.1% 활용률을 보임

### <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 >

| 구분 | 한·칠레<br>(2004)            | 한·싱가포르<br>(2006)         | 한·EFTA<br>(200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·ASEAN<br>(20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·인도 CEPA<br>(2010)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출 | 96.9%<br>(2004.4~2007.12)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%<br>(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%<br>(2010.1~2011.8)   |
| 수입 | 94.4%<br>(2004.4~2011.3)  | 26.8%<br>(2006.3~2010.2) | 34.9%<br>(2006.9~2009.8)<br>43.6%<br>(2010) | 52.4%<br>(2007.6~2011.5)<br>68.1%<br>(2010) | 47.7%<br>(2010.1~2011.8) |

자료: 배찬권 외(2012), 「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- 한·ASEAN FTA은 무역전환보다는 무역창출의 효과가 두드러져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 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됨
  - ASEAN과의 FTA는 교역 증가는 물론 신규 진출 기업 수를 증가시켜 수출 품목의 다변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
  - 대ASEAN 수출기업의 수는 6,454개('09)로 FTA 이후 1.2배가 증가했으며 특히, 기존 수출기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신규 수출의 경우 FTA를 기점으로 연평균 57.5%의 증가율을 기록함
  - 수출 총액에서도 신규 수출이 기존 수출에 비해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\* 수출기업 수와 수출액 측면에서 모두 외연적 성장이 발생함
- \* 2008년 기존 수출은 전년대비 5.9%, 신규 수출기업은 162.3% 증가

12) 배찬권 외(2012), 「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-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업수, 수출액 증가에 있어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
- 수출 기업의 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수출액의 경우 대기업은 FTA 발효 전후에 각각 연평균 9.9%와 1.4%로 오히려 둔화된 반면 중소기업은 14.3%에서 15.3%로 증가함

< 국내기업의 대ASEAN 수출 실적: 대기업과 중소기업 >

(단위: 개, 백만 달러)

| 연도   | 대기업   |          | 중소기업  |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     | 기업수   | 수출액      | 기업수   | 수출액     |
| 2004 | 1,148 | 7,211.6  | 3,932 | 2,089   |
| 2005 | 1,160 | 8,448.4  | 4,030 | 2,172.4 |
| 2006 | 1,142 | 8,673.1  | 4,201 | 2,705.3 |
| 2007 | 1,203 | 9,922.9  | 4,549 | 3,501.8 |
| 2008 | 1,293 | 10,338.8 | 4,978 | 4,479   |
| 2009 | 1,354 | 8,848    | 5,100 | 3,962.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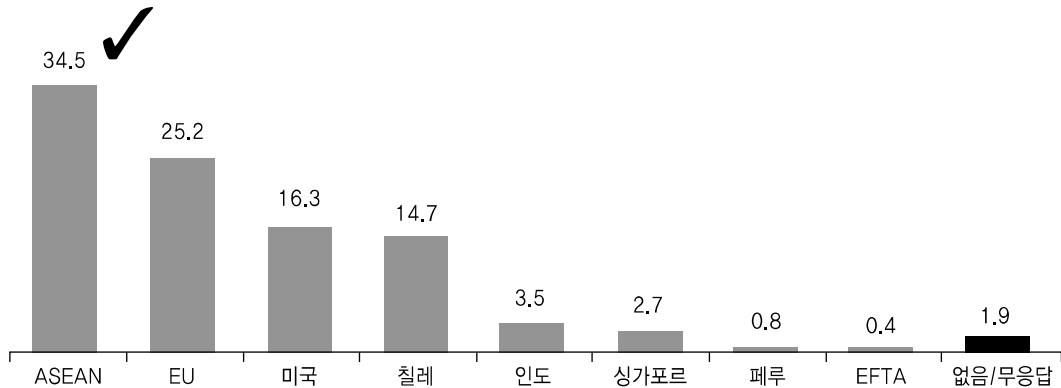
자료: 배찬권 외(2012), 「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### 3.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업의 입장

- 동아시아경제통합은 한중 FTA, 한중일 FTA 협상 개시와 함께 최종 목표로 자리하고 있음
- 우리 기업들도 한중 FTA를 넘어 한중일 FTA와 RCEP의 협상 진행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
- 수출입기업들은 이미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, 일본 및 ASEAN과의 FTA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또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전경련은 '12.9월 매출액 1,000대 기업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(524곳) 대상으로 「기존 FTA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」 설문조사를 실시함
- 결과에 따르면, 응답 기업(258곳)의 34.5%가 기존 체결한 FTA 중 ASEAN과의 FTA를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음
- \* 성공적이라고 꼽은 이유로는 '시장잠재력이 큰 개도국'(46%), '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'(23%), '시장 선점 효과'(16.9%), '고관세 국가'(16.9%) 등

< 가장 성공적인 FTA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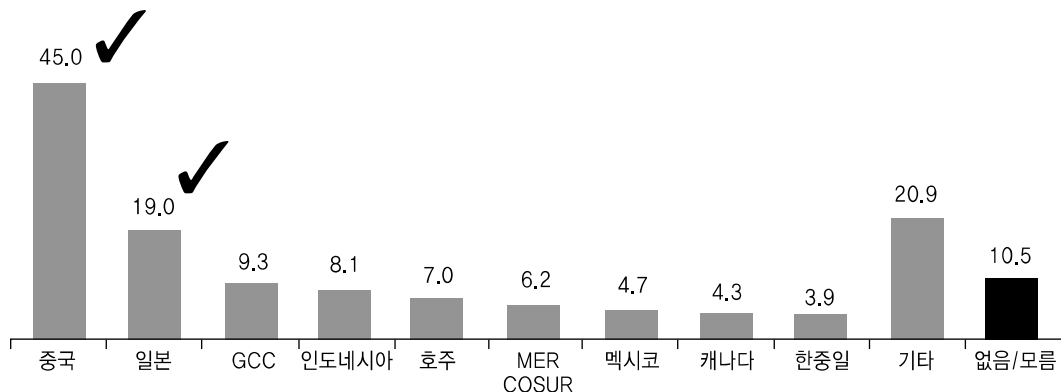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N=258)



- 향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FTA로는 응답자(복수응답)의 45.2%가 중국을 꼽았고 이어 19.4%가 일본, 4%가 한중일이라고 대답함
  - \* 이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1)무역 거래량이 많고 향후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, 2)시장 규모가 크고, 3)지리적으로 가까우며, 4)무역 규모가 크지만 무역 장벽이 높고, 5)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응답
- 또한 ASEAN과의 FTA는 이미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태국, 필리핀 등과의 FTA를 바라는 응답자도 14%에 달함
  - \* 이는 1)기존 FTA의 수준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아직도 방어정책이 많이 남아있으며 2)앞으로 무역 및 시장 규모,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응답
- RCEP 참여국인 호주, 뉴질랜드, 인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8.9%로 원자재 및 자원의 활용과 시장 진출 등의 이유를 꼽음

< 향후 FTA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 >

(단위: %, 중복응답, N=258)



- 인접국이자 교역량이 많고 시장이 큰 중국, 일본, ASEAN 등과의 FTA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경제통합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것으로 확인됨

## IV.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에 따른 시사점

- 거시경제 향상 및 거대시장 확보, 정치·외교·안보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은 큰 의미가 있음
  - 특히,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교역 활성화를 통한 실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내야 함
    -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최우선하면서 이 결과를 한중일 FTA, RCEP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
      - 한중 FTA의 경우 민감분야 보호방식 우선 합의 후 일괄타결방식의 전면 협상이라는 단계별 협상을 진행함
      - 한중일 FTA의 경우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한다는 입장임
      - RCEP의 경우 16개 참여국 사이의 협상이라는 복잡성으로 인해 단일양허안 이 거론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유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
    - 이러한 가운데, TPP와 미·EU FTA가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
      -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자유화 수준을 최대한 높여 이들 FTA의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    - 우리 정부는 그간의 FTA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전략적 필요에 의해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
      - 협상 수준과 범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취함으로써 단계적으로라도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
  -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FTA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어 수출에 필요한 금융, 마케팅,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
    - 실제로 수출입기업들은 FTA 추진 시 절차적 보완보다는 자금·마케팅·인력 등 수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    - 전경련 설문조사('12.9월)에 따르면 향후 FTA 추진 시 보완할 점\*으로 기업 수출 지원과 FTA 활용률 제고 등 사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
- \* 1)기업 수출 지원(25.2%), 2)FTA 활용률 제고(19.8%), 3)FTA 추진 절차 개선 및 홍보 강화(14.3%), 4)비관세 장벽의 철폐(9.7%), 5)피해 산업 구제(9.7%) 등

- 직접적인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무역구조의 전환과 기술 격차 완화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
  - R&D 세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내 제조업,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  -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간 기술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상품개발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상호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
- FTA 체결에 따라 향후 생산 기지를 국내에 설립하거나 해외 생산 기지를 국내로 U턴하는 움직임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  - 지식경제부는 최근 FTA 체결확대, 현지 인건비 상승 등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U턴 수요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
    - \* 지경부가 중국진출기업 439개사를 대상으로 U턴 유망 업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전자부품, 의복 등 U턴 유망 5개 업종 10% U턴 시, 약 8.5만 명의 고용 창출, 29.6조 원의 생산증가, 7.5조 원의 GDP 증가 효과 예상
  -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 중인 TPP 참가국 중 미국 등 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진행 중이며 미·EU FTA 참가국인 미국, EU와도 FTA를 체결했음
    - 이에 더하여 동아시아경제통합이 체결된다면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수준이 획기적인 단계에 이르러 우리 기업에게 시장 확보 및 자원 활용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
  -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U턴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경영 및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 해소와 자금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
    - \* 전경련이 '12.7월 발표한 '우리 기업의 국내U턴 현황 및 계획 조사'에 따르면 국내 U턴 촉진을 위해 '각종 규제 해소'(47.6%), '세제 지원 확대'(29.7%), '시설 및 운전 자금 지원'(15.9%)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
- 한·ASEAN FTA 체결 결과 교역의 증가는 물론 신규진출 기업의 수출액과 기업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중소기업의 수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 - 따라서, ASEAN을 포함한 RCEP 또한 관세 철폐에 따른 교역 증가는 물론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교역 증가의 효과가 기대됨
    - 특히, 신규진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약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

## < 참고문헌 >

- 전국경제인연합회(2012), 기체결 FTA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설문조사
- 전국경제인연합회(2012), 우리 기업의 국내U턴 현황 및 계획 조사
- 외교통상부(2012), 한중 FTA 체결계획
- 외교통상부(2012), 한중일 FTA 체결계획
- 외교통상부(2012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논의 동향
- 기획재정부(2011),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
- 기획재정부(2013), 함께하는 FTA 2월호
- 기획재정부(2013), OECD 부가가치기준 한국무역 분석
- 지식경제부(2012)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분석
- 지식경제부(2013), 중국으로부터 U턴 유망 업종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- 배찬권 외(2012),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송원근(2011),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와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, 한국경제연구원
- 송원근(2009),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, 한국경제연구원
- 이창재 외(2012),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이창재(2011), 한중일 FTA: 전망과 과제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박변순(2012), 동아시아비전그룹(EAVG) II 논의 동향, 삼성경제연구소
- 박변순(2011),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중일 FTA 세미나 토론문, 삼성경제연구소
- 박변순(2012), 동아시아 협력과 한중 FTA 역할, 삼성경제연구소
- 박변순(2012), 한중일 FTA와 역내 경제통합, 삼성경제연구소
- 최용민(2012), 한중 FTA의 우리 교역에 대한 영향, 한국무역협회
- 김도운(2012), 한중일 FTA와 제조업 분야, 산업연구원
- 배궁찬(2012), TPP, RCEP, 그리고 한중일 FTA: 외교안보적 관점에서, 국립외교원
- 손 열(2012), 한중일 FTA 공청회 토론문, 연세대
- 김수동(2012), RCEP 제조업분야 대응방안, 산업연구원
- 박천일(2013), 한중일 FTA, RCEP 등 동아시아경제통합 가속화, 한국무역협회